

2012. 02. 14

보도자료

이 자료는 2. 15(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대외협력팀

팀장: 양혜정 Tel. 3299-1055, 담당: 김현주 Tel. 3299-1263

OECD 지역 세미나 개최

『동남아 지역 개발 격차 축소 및 포괄적 성장을 위한 정책 대화』

Narrowing development gaps in Southeast Asia : A policy dialogue on inclusive growth

- 행사명 : OECD 지역 세미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개발 격차 축소 및 포괄적 성장을 위한 정책 대화』
- 기 간 : 2012년 2월 15일(수)~16일(목)
- 장 소 : KDI 국제정책대학원 7층 앰버서더홀
- 주 최 :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 KDI 국제정책대학원 · OECD 개발센터(Development Centre)

□ KDI 국제정책대학원(총장: 현오석)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소장: 남상우,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겸직), OECD 개발센터(Development Centre, 소장: 마리오 페찌니(Mario Pezzini), 프랑스 파리 소재)와 공동으로 15, 16 양일간 지역 세미나를 KDI 국제정책대학원 앰버서더홀에서 개최, 동남아시아 지역의 개발 격차 축소와 포괄적 성장을 위한 정책대화를 진행함

- 본 정책대화는 아시아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사회통합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공유하고 동남아 각 국가의 현실적 과제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그 결과를 OECD 개발센터의 주요 출간물인 "동남아시아 경제 전망 (Southeast Asian Economic Outlook : SAEO 2012/2013)"에 포함할 예정임

○ 본 정책대화에는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12개 국가의 정책담당자들과 함께 OECD 개발센터, 아시아개발은행(ADB), 메콩연구소(Mekong Institute), KDI(한국개발연구원)등의 국내외 전문가 총 38명이 참석함

□ 본 정책대화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개발 격차와 이로 인한 사회적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공유하고, 각 국가의 사회통합 정책의 효과적 측정과 평가를 위한 지표를 생성하는 작업도 진행함

○ 15일 첫 세션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OECD한국대표부의 허경욱 대사가 좌장으로 나서며, OECD 개발센터의 후카사쿠(Fukasaku) 박사 등은 SAEO 2011/2012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그 특별주제인 녹색성장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어떻게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공유함

○ 두 번째 세션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개발 격차 축소와 사회 통합”을 주제로 국가 간 및 각 국가 내의 격차 및 양극화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회통합정책방안을 모색

- 정책대화의 깊이와 범위를 더하기 위해, OECD 개발센터의 라글레시아(Laiglesia) 박사는 “세계 개발 전망(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에서 특별주제로 수행한 사회통합이슈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고려대학교 이우진 교수, KDI 우천식 박사 등은 한국 및 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적인 정책과 경험을 공유함

○ 16일에 있는 마지막 세션은 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워크숍으로 진행함

- 이 지표는 지역 내 국가 간 및 국가 내의 과거와 현재의 비교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관점에서 취약점을 찾아 벤치마킹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여러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임

❖ 문의 ▪ 박헌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02-3299-1028, 010-****-****)

▪ 허지혜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연구원

(02-3299-1226, 010-****-****)

❖ 첨부#1. 프로그램

❖ 첨부#2. 주요 연사 프로필

❖ 첨부#3. 인터뷰 신청서

❖ 첨부#1. 프로그램

OECD Regional Seminar

“동남아시아지역의 개발격차 해소: 포용적 성장에 관한 정책협의”

신흥국 및 개도국에게 있어서 지난 20년간의 경제개발은 세계 경제의 재편성으로 특징지어 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부의 이동”으로 부르며 경제개발은 경제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아시아의 급속한 성장은 지속되는 취약성과 심각한 불평등의 문제를 낳았으며 이는 사회통합 및 장기적 개발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개발 패러다임에 관한 조사와 동등하게 공유를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아시아 지역에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새로운 정책 해결책이 필요하다.

본 세미나에서는 OECD 개발센터의 최근 연간 발간물의 결과물에 관하여 나누게 될 것이다. 녹색성장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경제 전망 2011/12.’에서는 동남아 지역의 거시 경제적 맥락을 설명하며, ‘2012 세계 개발에 관한 전망’에서는 사회통합에 관하여 나누게 된다. 본 세미나를 통하여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개발격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과거성장과정을 통한 사회결과물을 비롯하여 포용적 성장을 이루고 사회통합의 수준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 정책 종류 등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날의 미니 워크샵에서는 사회통합의 촉진을 위한 어떻게 정책의 영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지에 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이 주어진다.

본 세미나는 지역 정책입안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및 최선의 관행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 될 것이다.

첫째날: 2012년 2월 15일(수)

9:00-9:30

등록

9:30-9:50

환영사

- 키이치로 후카사쿠(Kiichiro Fukasaku), OECD 개발센터 지역사무소장
- 현오석, KDI 원장

개회사: 허경욱, 주 OECD 대표부 대사

세션1: 동남아 지역의 경제 전망 및 정책 과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을 포함한 여섯 개국의 동남아 국가들의 성장은 가까운 시기에 완만해 질 것이다. 세계적인 불확실성과 자연재해는 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OECD 회원국의 침체된 경기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2016년 까지 탄탄한 성장을 이어 나갈 것이다. 긍정적 전망을 이어가기 위해서 동남아 국가들은 구조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각국의 경제가 균형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천연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성장을 위한 새로운 근원을 발굴해 내는 것에 목적을 둔 녹색성장은 장기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에게 실행 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공한다. 최근에 시행된 여러 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대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좌장: 허경욱, 주 OECD 대표부 대사

9:50-10:50

동남아 지역의 거시 경제 전망 및 구조적 정책과제

‘동남아시아 경제 전망 2011/12’의 주요 결과물을 근거로 하여 동남아 지역의 중기 경제 동향 및 단기 거시 경제적 문제점 및 구조적 정책 개혁에 관하여 발표

발표자:

켄수케 타나카(Kensuke Tanaka), OECD 개발센터 아시아 지부

프로젝트 매니저 겸 이코노미스트

토론자:

- 자카리아 압둘 라시드(Zakariah Abdul Rashid), 말레이시아 경제연구소 소장

휴식

11:10-12:10

녹색 성장 - 대안적인 성장 전략

OECD 회원국 및 몇몇 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녹색 성장 및 저탄소 녹색경제의 전환으로 인한 잠재적 이득에 관한 주제를 다룬 ‘동남아시아 경제 전망 2011/12’에 관한 발표, 한국경험에 관한 발표도 본 세션에서 진행

발표자:

키이치로 후카사쿠(Kiichiro Fukasaku), OECD 개발센터 지역사무소장

토론자:

- 정은해,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

- 사토시 코지마(Satoshi Kojima), 세계환경전략기구(IGES), 경제 및 환경부 선임연구원 겸 과장

- 플로리안 알부로(Florian Albuero), 필리핀대학 경제학 교수

사진촬영 및 오찬 7층 링컨홀, KDI School

세션2: 동남아 지역의 개발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 달성

동남아 국가들은 주목할 만한 경제적 성장을 경험하였다. 반면 일부 동남아 국가들의 빠른 성장은 시민들의 풍요로운 생활로 항상 이어지지 않는 않았다.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큰 성장을 향한 길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경제적 사회적 변화는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들과 함께 등장한다. 재정에서부터 고용, 사회적 보호 그리고 교육에 이르는 일관된 정책이 잘 이루어지게 편성되어야 하거나 재편성되어야 한다. 최근의 ‘2012 세계개발에 관한 OECD 전망’은 실제로 사회통합이 장기적 경제성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며 그 자체적으로 가치 있는 목표라고 주장한다. 동남아시아도 세계적으

로 가장 다양한 곳 중 하나이다. 국가내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동시에 국가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동남아 지역에서는 오래 동안 정책의 우선순위로 여겨져 왔다. 다음 ‘동남아시아 경제 전망 2012/13’ 판에서는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발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에 관하여 살펴 볼 것이다.

14:00-16:00 | **개발 격차 해소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다음 ‘동남아시아 경제 전망’판에서 다룰 개발격차해소에 관하여 소개하며 지역적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 및 전략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논의

진행자:

켄수케 타나카(Kensuke Tanaka), OECD 개발센터 아시아지부 프로젝트 매니저 겸 이코노미스트

발표자:

- 이우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송탄(Kim Song Tan),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라타 콩(Ratha Kong), 캄보디아 재경부, 경제통합&아세안국 과장
- 포펫 쿼필라봉(Phouphet Kyophilavong), 라오스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

- 수캇 카티마(Suchat Katima), 메콩연구소 과장
- 우천식, KDI 산업기업경제 연구부장

휴식

16:30-18:30 | **어떠한 경제개혁이 사회통합을 촉진하는가?(내용 및 과정)**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연구한 ‘2012 세계개발에 관한 OECD 전망’의 주요 결과물에 관하여 발표가 이루어지며 각 국가들의 성공적 정책에 관한 경험위주의 사례발표가 이루어짐

진행자:

이영섭,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표자:

- 주안 라글레시아(Juan R. de Laiglesia), OECD 개발센터 이코노미스트
 - 파타마 핀라비시트사굴(Pattama Teanravisitsagool), 태국 경제 및 사회 개발청 (NESDB) 소장
 - 누 주안 루(Ngo Xuan Lieu), 베트남 근로사회복지부, 고용 및 노동시장정보국 과장
 - 홍잉림(Hong-Eng Lim), 말레이시아 국세청, 사전검사부 국장
 - 구안진 첸(Guangin Chen), 중국 사회과학 학술원, 사회학부 과장
- 토론자:
- 박동현, 아시아개발은행, 경제연구부 수석이코노미스트

비공식 만찬

둘째 날: 2012년 2월 16일(목)

세션3: 개발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노력: 더 나은 방안 및 정책

사회: 박헌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 거버넌스 및 정치 경제학 교수

9:30-12:15 | 사회통합 측정에 관한 워크숍 (모든 참가자)

본 세션에서는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개발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체제 개선에 도움을 주는 틀에 관하여 토론하게 된다. ‘OECD 개발센터의 사회통합 정책검토’에 관한 제안이 토론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는 국가별 매개체로써 사회통합의 영향에 관한 정책 제안을 진단하고 제공할 것이며 이는 ‘2012 세계개발에 관한 OECD 전망: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사회통합’의 결과물을 기준으로 논의 될 것이다. 참가자들은 토론을 위해 모이기 전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 된다.

목표:

1. 어떻게 사회통합 체제가 정책분석과 개선에 사용될 수 있을 지 논의
2. 사회적 과제 및 지역 내 국가들의 개발목표를 나타낼 수 있는

사회통합 및 개발격차 정책에 관하여 논의

3. 일반적이고 동남아 국가들에게 적합한 방법론의 개선여부를 논의

발표자:

주안 라글레시아(Juan R. de Laiglesia), OECD 개발센터 이코노미스트

그룹 A-정책분석

본 그룹은 사회통합에 관한 정책 효과의 증진하기 위하여 정책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논의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각국에 최우선 과제에 있어서 가장 관계있는 분석을 논의 하게 된다.

그룹 B-지표

본 그룹은 사회통합 및 개발격차의 상태를 국가적 차원에서 진단하는 지표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참가자들은 다른 대안을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된다.

종합토론

12:15-12:45

향후 방향 및 폐회사

- 남상우, OECD 한국센터 소장 겸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 키이치로 후카사쿠(Kiichiro Fukasaku), OECD 개발 센터 지역 사무소장

오찬

❖ 첨부#2. 주요 연사 프로필

허경욱

현 OECD 대표부대사
전 기획재정부제1차관
전 재정경제부국제금융과장, 국제금융국장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키이치로 후카사쿠(Kiichiro Fukasaku)

현 OECD 개발센터 지역사무소장
전 GATT 이코노미스트

주안 라글레시아(Juan R. de Laiglesia)

현 OECD 개발센터 이코노미스트(빈곤분야)
세계 개발 전망 2012 저자

켄수케 타나카(Kensuke Tanaka)

현 OECD 개발센터 아시아 지부 프로젝트 매니저 겸 이코노미스트
전 OECD비회원국과의 협력을 위한 OECD센터 프로젝트 매니저

현오석

현 KDI 원장
현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
현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위원
전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
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전 국민경제자문회 사무처기 획조정실장
전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남상우

현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겸 OECD대한민국정책센터소장
전 KDI부원장
전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전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베트남기획투자부자문관

❖ **첨부#3. 인터뷰 신청서**

※ 인터뷰가 가능한 연사는 아래 4명입니다. 원하시는 연사란에 인터뷰 요지를 적어 주십시오.

| OECD 지역 세미나 연사 인터뷰 신청 | |
|--|---------------|
| 성 명 | |
| 소 속 | |
| 연 락 처 | |
| e-mail | |
| 인터뷰 대상자 | 인터뷰 요지 |
| 허경옥 OECD 한국대표부 대사 | |
| 키이치로 후카사쿠 OECD 개발 센터 지역 사무 소장 | |
| 켄수케 타나카 ‘동남아시아 경제 전망(SAEO)’ 총괄 매니저 | |
| 주안 라글레시아 ‘세계 개발 전망 2012 :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사회통합’의 저자 | |

◆ **참고사항**

- 마감 : 2월 14일 (화) 오전 12시
- 신청 : KDI 국제정책대학원 대외협력팀 김현주 연구원
(02-3299-1263, , hjkim@kdischool.ac.kr)
- 확정공지 : 2월 14일 (화) 오후 5:30
- 특정 인사에 신청이 몰릴 경우 합동 인터뷰로 진행